

‘엘 치노’와 ‘라 치니타’ – 니코메데스 구스만의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 *La luz viene del mar*』에 나타난 중국인 이주자의 정형화와 차별적 재현*

조 경 진

고려사이버대학교

조경진(2019), 「‘엘 치노’와 ‘라 치니타’ –니코메데스 구스만의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 *La luz viene del mar*』에 나타난 중국인 이주자의 정형화와 차별적 재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2), 45–79

초 록 이 글은 칠레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태동시킨 38세대 작가 니코메데스 구스만의 소설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 *La luz viene del mar*』(1951)에 재현된 중국인 이주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당시 국민국가로서 칠레 ‘국민’ 상상계에 드러난 중국인 이주자의 부적합성과 배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중국인 이주자와 유럽출신의 이주자를 대비시켜 등장시킴으로써 후자를 진정한 칠레 노로 세우고 있는데, 서사에서 중국인은 후손 없이 사망하거나 칠레를 떠나게 되면서 칠레에서의 흔적이 지워지게 된다. 구스만은 중국 이민자의 이국적인 신체적·기질적 속성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특질로 환원시켰으며, 서구출신의 이민자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중국인은 여성적이고 유아적이며, 나약하고 음탕하게 그리고 있는 반면에, 서구출신 이민자는 남성적이고 주체적이며, 감성적이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중국인을 열등한 존재로, 서구출신 이민자는 우월한 존재로 세웠다. 소설에서 중국인 이주자는 칠레노가 될 자격이 없거나, 칠레에 거주를 해도 칠레노로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비쳐짐으로써 칠레북부에서의 중국인 이민의 역사가 부정되고 있다. 구스만은 칠레의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했던 민중작가였지만은 칠레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서구 중심주의와 중국이주자를 묘사하는 데 인종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핵심어 중국인 이주민, 칠레, 인종주의, 니코메데스 구스만,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2A3038844).

흔적을 이들 후손들의 성씨, 공동묘지, 음식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스만은 북부지방 출신의 작가는 아니었지만, 북부의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노동조건을 이겨내며 살아간 초석노동자를 숭고한 존재로 인식했었다. 또한, 북부지방은 칠레 노동운동의 발생지이자 공산당이 창당된 칠레 좌파의 성지로, 구스만은 북부지방의 민초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통해 그들에게 헌사를 바치고자 하였다(Pearson 1977, 30). 『빛은...』 하나의 테마로 집약되지 않는, 여러 명의 주인공들의 일화를 엮어 그 곳 주민들의 삶의 무게와 애환을 담아낸 소설이다. 이 주인공들 중에는 ‘엘 치노(el chino)’와 ‘엘 그리에고(el griego)’처럼 출신국가에 따라 별명이 주어지는 인물도 있고, 칠레노(chileno), 즉 칠레 사람으로 설정된 인물들도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 책은 북부지방의 코스모폴리탄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 듯한 인상을 준다.

본 연구는 칠레북부지방의 다국적성과 다민족성이 문학작품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고 그것이 ‘로 칠레노(lo chileno)’, 즉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구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지방은 고유의 ‘북부문학(la literatura del Norte)’을 자랑하는데, 안드레스 사베야(Andrés Sabella), 마리오 바아몬데(Mario Bahamonde)와 같은 북부출신의 작가들로 대변되는 ‘북부문학’은 초석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주된 이야기 소재로 활용하였다(González Pizarro 2002, 56). 이들은 북부지방의 코스모폴리탄한 구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곳의 다국적성과 문화적 차이보다는 자연의 척박함, 초석산업의 특수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의식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부문학에서는 칠레적인 것을 규정하는 데 이민자 집단의 차이, 국적의 구분 등을 주된 축으로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스만의 소설은 국적/종족적 특징을 가진 이민자를 묘사하고 재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특히 ‘북부문학’ 뿐만 아니라 칠레문학 전반에서 ‘이민문학’이라고 지칭할만한 분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칠레에서 이민문학의 부재는 이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유

지하고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구스만은 유럽출신의 이민자와 중국인 이민자를 대비시키면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중국인과 유럽출신의 이민자, 그리고 ‘칠레노’에 대한 저자의 판단과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구스만은 북부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외부인의 시각에서(특히 중앙의 시각에서) 북부의 혼종적 문화와 중국인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북부의 역사와 문화가 친숙하지 않은 산티아고 시민에게 북부는 충분히 이국적이었지만, 그 곳에서의 중국인의 존재는 더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당황스러움이 중국인 인물들로 하여금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설에서 중국인들은 사망이나 귀국을 통해서 칠레 땅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결말의 설정은 중국인 이민자가 다른 이민자들과 달리 칠레로 통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스만은 칠레의 프롤레타리아를 옹호했던 민중작가였지만 칠레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서구중심주의와 인종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니코메데스 구스만의 작품세계와 그가 칠레북부와 맺게 된 인연, 그리고 소설 출판 전에 칠레에서 나타났던 중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주의를 소개할 것이다. 그 뒷 장에서는 『빛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소설에서 중국인 이주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칠레인 또는 다른 국가출신의 이주자와는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저자의 직접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 어투, 행태, 몸짓 등에 대한 서술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사에서 중국인이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운명이 진정한 칠레노와 열등한 이방인을 구분 짓는 장치로서 하는 역할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구스만의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실제 중국인들의 모습과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중국인에 대한 여론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만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집단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후속연구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과 논의의 대상을 책에 나오는 내용에 국한시켜서 소설에 재현된 중국인의 상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II. 니코메데스 구스만과 칠레북부

1. 민중작가, 니코메데스 구스만

산티아고의 인근 슬럼가에서 12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난 니코메데스 구스만(1914-1964)³⁾은 칠레의 '38세대(la generación del '38)'를 대표하는 작가로, 미천한 출신성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면서 노동계층에 대한 사실주의 소설을 썼던 첫 문학세대이다. 1938년은 당시 진보정당인 민중전선(Frente Popular)의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가 집권을 했던 해로, 38세대의 작가들은 그 전후로 칠레 민초들의 가난과 비참한 생활조건, 노동운동의 태동과 그 정당성에 관한 소설과 시, 에세이 등을 활발하게 출판하였다.⁴⁾

니코메데스 구스만은 자전적 소설 『피와 희망 *La sangre y la esperanza*』(1943)이 1944년에 영예로운 '산티아고시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문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 『피와 희망』은 산티아고의 슬럼에서 성장하는 한 청년의 눈으로 동네 주민들의 희로애락과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그들의 노력, 그리고 국가

3) 니코메데스 구스만의 본명은 오스카르 니코메데스 바스케스 구스만(Oscar Nicomedes Vásquez Guzmán)으로, 38세대 동료 작가였던 오스카르 카스트로 순니가(Oscar Castro Zúñiga 1910-1947)와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해 중간이름과 어머니의 성씨를 딴 필명으로 활동하였다(Ferrero 1982).

4) 칠레의 38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로는 오메로 바스쿠냐(Homero Bascuñan), 곤살로 드라고(Gonzalo Drago), 후안 네그로(Juan Negro), 라울 노레노(Raúl Noreno)와 훗날 민중연합(Unidad Popular) 정권 때 문화공보관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페르난도 알레그리아(Fernando Alegría)와 북부초석 시대의 노동운동을 조직화했던 엘리야스 라펠테(Elias Lafferte)에 대한 소설, 『초석의 아들 *El hijo del salitre*』을 쓴 볼로디아 테이테일봄(Volodia Teitelboim)도 이에 포함된다(Pearson 1976, 52). 북부의 초석시대 출신 작가였던 안드레스 사베야(Andrés Sabella)와 마리오 바이몬데(Mario Bahamonde)도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폭력에 의한 그 노력의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구도를 이야기의 플롯으로 활용하지 않은, 온전히 칠레 노동계층만을 중심으로 두고 그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 등장하는 폭력과 애환을 담아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Pearson 1977, 22).

작품활동을 하면서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와 친분을 맺게 된 구스만은 1948년 7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네루다를 동행하여 칠레의 남부와 북부지방을 다녀온다. 광활한 아타카마 사막이 펼쳐지는 북부지방은 초석이 채굴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불모지였다. 20세기 전후로 초석이 폭탄과 비료의 원료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초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곳에 정착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내륙지대의 사막(pampa)에는 초석채굴지와 임시거주촌들이, 해안가의 수출항들에는 작은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초석광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은 이 곳 노동자들을 급진화 시켰으며, 이들은 1912년에 이키케(Iquique) 항구로 내려와 ‘칠레 공산당’을 창립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북부지방은 ‘칠레노동운동의 요람’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고, 칠레 노동운동사에서 성지로 자리매김 되었다(조경진 2014, 57).

구스만이 북부지방을 탐방하러 간 데에는 이 지역이 노동운동 발생지로서 갖는 상징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직접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Pearson 1977, 30-31).⁵⁾ 그는 “여행중에 네루다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이곳의 공간, 바다, 밝음, 가난, 노동분쟁, 사회문제, 그리고 북부지방 고유의 완전한 인간소외를 합성시키는 소설을 쓰고 싶어했다”고 전해진다(Pearson 1977, 125). 더불어, 기혼자였던 구스만은 에스테르 파나이(Ester Panay)라는 애인을 두고 있었는데, 파나이는 북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었다. 구스만은 파나이와 함께 북부지방을 여행하기도 했으며, 파나이

5) 구스만은 “북부지방에 대해 쓰는 것을 흥미하였으며, 북부지방에 대한 명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동료들이 북부지방에 대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물론 그 후에 많은 작가들이 북부에 대한 소설들을 내기 시작했지만 말이다.”(Pearson 1977, 105).

의 친지들을 만나 북부에 대한 소설을 쓰는 데 필요한 역사와 생활상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Pearson 1977, 30).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작품이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1951)이다.

2. ‘중국인의 문제(el problema chino)’와 중국인의 타자화

구스만이 집필 전에 이 지방의 중국인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태도와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주어진 자료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동운동 옹호자라면 ‘중국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스만은 노동계지도자들과 북부지방 작가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의 문제’는 1910년 전후로 초석광산주들은 칠레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더 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볼리비아인과 중국인 쿨리들을 수입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파생되었다.⁶⁾ 당시 노동언론은 이를 ‘황인종의 침략(la invasión amarilla)’이라 하여 이러한 자본가들의 계략을 개탄하였는데, 그 논조에는 중국인들이 칠레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신체적·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인종주의적 판단이 짙게 배어있었다(Fernández Navas 2015: 90-91).

그 당시 노동언론은 이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 대체인물들은 칠레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하고, 육체적 기력과 지적, 윤리적 기력에서 1/10도 안 되며, 그저 기계를 돌리는 단순노동만 하는데 적합하다. 이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고 순응적이다. 우리 민족의 남성성(virilidad)이 결핍되어 있다.(El Pueblo Obrero 1907; Fernández Navas 2015, 85에서 재인용)

중국인의 이민이 우리에게 어떤 발전을 선사하는가? 물질적, 도덕적, 예

6) ‘중국인의 문제’는 안드레스 사베야의 소설 『광활한 북부 Norte Grande』에서 짧게 언급되고 있다(Sabella 1959, 276).

술적, 과학적, 지적 차원에서 그 어떠한 발전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 이 한심한 인간들(*infelices seres humanos*)은 과거의 관습에 얽매어 있어 우리와 같은 신생 국가에 맞지 않는다. ... 이러한 고대의 종족(*antiguísima raza*)은 완전한 혁신을 필요로 한다.(*El Pueblo Obrero* 1909; Fernández Navas 2015, 90에서 재인용)

중국인은 칠레노동자 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에 비해서도 열등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 연재 글의 목적은 노동력의 수입 그 자체를 규탄하는 데 있었지만, 대체인력으로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볼리비아인과 중국인을 불러드리는 것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유럽의 노동자를 들여와야지, 중국인은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유럽노동자는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국인을 그러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다.

페르난데스 나바스는 중국인(과 볼리비아인)에 대한 이러한 인종주의적 판단 기저에 도밍고 사르미엔토(D. Sarmiento)가 주장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 프로젝트, 즉 신대륙의 야만적 속성을 극복하고 서구적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모두 척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Fernández Navas 2015: 81). 즉, 근대적인 것을 서구문명에 빗대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세우고, 미개함과 야만성은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항대립적인 구조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민과 관련해서 1850년대 칠레에서 이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었고, 실제로 이민정책이 이를 기초로 집행되었다. 그 당시 칠레의 '사회적 문제(*el problema social*)'의 폭로에서 드러난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하층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장려되었다: "[유럽에서] 유입된 평화로운 이민자, 부지런한 정착민들은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통해 최고의 책보다, 최고의 상품을 싣고 있는 화물선들보다 더 문명화된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인식이 대중화 되어 있었다(González 1848, 18; Collier and Sater 1996, 94에서 재인용). 그 이후, 실제로 칠레에 유입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유럽출신의 이민자 수는 약

정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1978)에서 제기하는 타자화의 과정과 흡사하다. 서구의 중동문화에 대한 규정처럼, 『빛은...』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진부하고 정형화된 준거의 활용과 이러한 캐리커처(caricature)를 토대로 종족간의 차이가 강조된다. 저자는 선언적으로 이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중국인과 서구출신의 다른 이민자를 이항대립적인 범주로 이원화 시켜서 서구인과 서구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cf. Said 1978, 2-3).

구스만의 작품세계를 비평한 피어슨은 구스만의 소설에는 강인한 영웅적인 인물도 없고, 이에 대항할만한 반영웅적인 인물도 없다고 했다. 『피와 희망』에 나타난 구스만의 주된 등장인물들은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동계층의 남녀들이었다. 그 인물들은 서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기괴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은 그가 개인적으로 타락했거나 저속해서가 아니라, 사회 부조리와 그를 나락으로 내모는 열악한 삶의 조건, 그가 처한 완전한 소외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런 면에서 피어슨은 구스만이 자신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평등하게 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Pearson 1977, 130). 그것은 그 인물들이 ‘칠레 프롤레타리아’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이고 구스만 자신이 이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스만은 프롤레타리아의 밑바닥 인생에 대한 연민이 컸다. 그러나 유독 『빛은...』의 중국인 이주자에 대해 구스만은 동정보다는 멸시에 가까운 묘사를 했다. 이는 중국인을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자본가계층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하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은 엄청난 부나 문화자본을 가진 집단은 또한 아니었다. 그의 묘사에서 중국인은 영국이나 미국출신의 ‘그링고(*gringo*)’ 자본가와도 또 다른 형상이다. 등장인물에 대한 폄하와 멸시의 시선은 그의 문학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III. 『빛은 바다로부터 온다 *La luz viene del mar*』의 즐거리와 등장인물

『빛은...』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승전결로 배치하는 원론적인 플롯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작 『피와 희망』은 주인공 엔리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빛...』은 뚜렷한 주인공 없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나열하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은 대공황 이후 초석 산업이 황혼을 맞이하는 시기로, 이키케 항구 인근의 세로 드라곤(Cerro Dragón)과 내륙 팜파의 초석촌을 넘나들고 있다. 등장인물 중 중국인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허드렛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며, 여성들은 매음굴에서 일하는 창녀이거나 아직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소녀들이다. 소설의 사건들은 이들의 허름한 집이나 술집, 가게 또는 바닷가에서 일어나는데, 이들 공간의 어두움과 사막지대의 뜨겁고도 밝은 햇빛의 대비가 시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형적인 플롯구성인 영웅과 반영웅 간의 대립-갈등구조, 갈등의 해결을 통해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은 사랑과 우정, 배신과 의리, 폭력 등 여러 형태로 그 관계가 얽혀 있지만, 저자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특정인물에 고유의 장 제목을 붙여서 해당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 세상의 두려움을 아직 모르는 순수한 소녀 비르히니아(Virginia), 중국상인 치노 린(el Chino Lin)과 젊은 중국인 새댁 클레멘티나 이웃(Clementina Hiut), 비르히니아의 할아버지인 그리스 출신의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el Griego Cholakys), 그의 술벗인 노르웨이 출신의 엘 노루에고(el noruego), ‘생선대가리(Cara de Pescado)’ 등의 인물들이 각자에게 할애된 장에서 소개된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 그들의 역사가 밝혀진다.

비르히니아는 엘 그리에고의 손녀로, 그 아버지는 노동분쟁에서 죽임을 당해 의붓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의붓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취할

때면 상습적으로 어머니 소피아(Sofia)에게 손찌검과 발길질을 한다.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는 비르히니아를 챙겨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지만, 동네의 술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며 못 여성들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는 ‘멋쟁이’ 인물이다. 술집여자인 프레시아(Fresia)는 엘 그리에고를 흠모하지만, 치노 린이 항상 매달리며 결혼하자고 한다. 한편, 에우도시오(Eudocio)라는 젊은이는 비르히니아를 짝사랑하지만 가련한 중국여인 클레멘티나에게 강한 욕망을 느끼고 그녀를 유혹한다.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후반부에 토마사(Tomasa)라는 여인이 등장하여,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각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을 소피아에게 전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치노 린은 프레시아의 거부에 좌절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하고, 에우도시오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클레멘티나는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게 된다. 프레시아는 출라키스를 단념하고 옛 정인 안드라데(Andrade)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일하다가 사고로 팔이 절단된 안드라데의 상처가 덧나자 그도 역시 죽게 된다. 비르히니아는 자살을 하려고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구조를 받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를 해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요소가 많은데, 구스만은 이러한 사건들을 일상적인 것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의 테마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구스만의 문학세계를 연구한 피어슨에 따르면, 『빛은...』의 테마는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부지방의 지리적-공간적 특수성과 그 극한 환경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소외,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일구어내야 하는 혁명에 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시한다(1977, 134). 그는 나아가서 이 소설은 구스만이 의식적으로 전원문학(pastoral literature)을 조롱하고 전복하기 위해 쓴 ‘거짓 전원문학(mock-pastoral)’으로 해석하고 있다(Pearson 1977, 230). 전원문학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관계의 단순화와 정화(순수에로의 회귀)를 추구했다면, 구스만의 소설에서는 자연, 즉 초석이라는 상품을 안겨준 척박한 아타카마 사막은 인간에게는 재앙이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기 파멸의 길을 가게 요인으

로 등장한다.⁸⁾ 구스만은 북부지방의 광활한 사막산과 푸른빛 바다, 뜨거운 햇빛에 대한 다양한 시적인 묘사를 통해 그 곳 환경이 독자에게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Pearson 1977, 125). 서정적인 화려한 수식으로 사계절이 존재하지 않는 이곳의 척박함이 느껴지도록 환경을 묘사했다.⁹⁾

『빛은...』의 결말에서 행복해지는 주인공은 아무도 없다. 그저 모두 주어진 대로 자신의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듯하다. 그것은 개인적인 특징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운명이 칠레 노동자 계층의 소외라는 필연성에서 기인한다는 저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중국인 주인공들의 운명이나, 그 여타 주인공들의 운명이 그다지 다르지 않게 읽힐 여지도 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불행했던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더 주변적이며,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치노린은 사망을 하고, 클레멘티나는 에우도시오와의 관계가 발각되어서 중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들은 결국 칠레에서 존재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 이것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중국인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내려서는 안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인물들은 자녀나 자손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야기에서 엘 그리에고와 엘 노루에고는 모두 후손들이 있다. 그들은 그 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 곳 여성과의 관계에서 (꼭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도) 자손을 낳아 땅과 밀착된 ‘칠레노’ 후손들을 생성한 것이다. 그러나 치노린과 클레멘티나는 후손 없이 칠레를 떠난다. 실제로 중국인 이민자는 북부에 많은 후손과 흔적을 남겼지만은, 『빛은...』에서 중국인은 칠레와 결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구스만의 중국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중국인에 대해 그는

8) 문체에서도 전원문학이 산문과 시를 번갈아 쓴 것과 같이 구스만도 『빛은...』에서 산문과 시, 노래, 격언, 사랑의 선언 등을 섞어 쓰고 있다. 피어슨은 전원문학의 문체를 차용한 것에서 구스만이 의식적으로 전원문학을 조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Pearson 1977, 231)

9) 예를 들어, “땅은 그럴듯하게 사계절을 느낄 수 없었고, 대신에 채찍질과 같은 햇빛, 추위가 물고 온 탄식, 습한 사막의 안개(camanchaca)는 형제애로 포장된 인류의 어리석음을 분담해야 했다”(Guzmán 1951, 277).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했고 중국인을 바람직한 칠레노 상과 거리가 먼 존재로 규정했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은 책에 나온 중국인의 재현방식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IV. 중국인 등장인물의 재현과 정형화

1. 엘 치노 린(EI Chino Lin)

1) 이국적인 중국인의 시각화

『빛은...』에서 치노 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섯 번째 장인 “동양의 메달”, 36쪽부터이다. 제22장, 26장도 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6장에는 치노 린과 또 다른 중국인 등장인물인 클레멘티나의 이야기가 나온다. 치노 린이 프레스리아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대목은 ‘창녀들의 코러스(Coro de ramerías)’라는 제목으로 28장에 나온다. 치노 린에 할애된 장이 나오기 전에도 중국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동네의 주정뱅이 롤란도 알칸타라(Rolando Alcantara)가 대낮에 또다시 “어떤 중국인의 어둡고 좁은 가게에서(en algún sucucho de chinos) 술을 퍼먹었다”는 대목에서 나온다(33). 중국인들의 가게를 ‘sucucho(배의 구석진 자리, 아주 좁고 어두운 공간)’로 표현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작렬하는 팜파의 태양과 대비되는 곳으로 구석지고 어두운 공간이 중국인의 가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어떤(algún)’을 썼다는 것은 그러한 가게가 여럿 있고, 모두 다 ‘그렇고 그런’, 허접한 싸구려 술집이라는 묘사이다.

엘 치노 세르히오 린은 도심에 자신의 가게를 가진 점주로 소개된다. 낮에는 고객을 응대하다가 저녁에는 일을 젊은 점원에게 맡기고 안락의자에 드러누워 아편을 피우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사색하는 것으로 나온다. 중국 파고다에 대한 향수, 잘라낸 머리꼬리에 대한 아쉬움 등... 치노 린의 생각은 그의 ‘찢어진 눈’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노 린의 줄음이 가득한, 찢어진 눈에는 수많은 칠레노들의 파라만장한 순례자의 역사가 스쳐가고 있었다. ...”(38). 저자는 치노 린의 생김새를 정형화된 ‘중국스러운 것’들과 관련시켜 묘사하고

있다. 땅이놓은 긴 머리꼬리를 이곳에 와서 잘라냈다는 것과, 눈이 작고 찢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고다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는 것으로 독자에게 이국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중국인의 신체적 특성과 중국의 이미지를 강조해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국적인 외모에 ‘중국인다운 행태’가 더해진다. 그는 저녁이 되면 아편을 피우는데, 치노 린은 담배 또는 파이프가 아닌 아편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정으로 제시된다. 그가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도 중국음식과 차 중심으로 제시된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밤새도록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물통을 걸어 잠근 후, 치노 린은 쌀밥 한그릇과 의례적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저녁식사를 때웠다.”(38). 쌀밥에 고기나 채소, 수프를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주식인 쌀밥 한 그릇만 먹고, 중국차 한 잔만 마시는 것으로 나온다.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과 대표적인 음료만 소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치노 린은 중국과 연관지어지는 정형화된 상징들을 모두 구현하는 인물이다.

2) 주체성과 남성성: ‘찌질한(infeliz)’ 치노 린 vs. ‘남성적인(viril)’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

치노 린은 어슬프고 남성적이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여러 대목에서 나타난다. 그가 처음에 이키케에 오게 된 경위, 자수성가를 해서 자신의 가게를 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가 흠모하는 프레시아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가 ‘한심하다’고 설정되어 있다. 한편, 프레시아는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를 사랑한다. 치노 린과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는 같은 장에서 소개되거나 등장하지는 않지만(둘은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각 인물에 대한 묘사가 큰 대비를 이룬다. 저자는 두 인물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소개하지는 않지만, 프레시아와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두 남자 인물을 비교하는 구도를 마련해두었다. 두 인물에 대한 서술은 프레시아가 치노보다 엘 그리에고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리에고는 낭만적이고, 남성적이며, 야생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치노 린은 여성적이고, 아이같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여성을 얻지 못했다는 개연성이 성립된다.

(1) 수동적인 치노와 능동적인 그리에고

지금은 성공한 가게의 주인이지만, 치노 린이 이키케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그가 젊었을 때 브로커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으로 나온다. 도착해서 보니 자신이 구아노를 채집하는 계약노동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노 린은 몇 명의 동행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 야밤에 도주한 그들은 중국인 묘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는 그로 하여금 더욱 더 자유를 갈구게 했다. … 그는 몇일 후 빈사상태로, 비참하게, 거의 별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었다.”(37).

치노 린은 속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명민하게 브로커의 계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주를 할 때에는 남성적으로 결단있고 용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독자는 중국인 공동묘지에서 두려움에 압도된 애처로운(나아가서는 한심한) 이방인을 그리게 된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길이 없었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속임수를 당한 것의 결과이어서 자신의 운명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사람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브로커로부터 도주를 해서 정착을 하게 치노 린은 가게 점원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자수성가한 작은 가게 사장님이 되었다. 그 시절에 대해서도 그가 부지런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다기 보다는, 당시 초석 붐을 타고 경기가 좋았기 때문(앞절의 인용문에서처럼 “수많은 칠레노들의 파라만장한 순례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즉, 그는 운이 좋아서, 경기를 잘 탄 덕분에 돈을 번 것이다. 치노 린은 자신의 분별력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지런함과 진취성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지는 않는다. 이는 엘 그리에고에 대한 서술과의 비교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엘 그리에고 출라키스가 소개되는 것은 제14장, 제31장 “요람의 노래”에서이다. 치노 린의 첫 등장인 아편의 효과로 몽롱한 상태의 드러누운 중국인의

를 헤아리는 그의 지력과 모험심으로 ‘해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별명에 걸맞게 이키케의 못 여성들을 설레이게 성적 매력의 소지자이다. 저자는 나아가서 그리에고의 푸른색 눈을 이곳의 푸른색 하늘과 바다와 어울리는 것으로 찬미하고 있다. 출라키스는 위대한에게 해 벳사람들의 후손이며, 서구사람(gringo)으로서 갖는 최상의 신체적 표상인 푸른색 눈의 소지자인데, 치노 린과의 더 근본적인 차이는 저자가 그를 이곳과 어울리는, 완전한 칠레노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 역시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를 흠모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키케를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그리에고는 심지어 이 땅에 대한 의리가 넘치는 사나이이다. “바실리오 출라키스는 이키케를 떠나려는 결단을 여러 번 내리곤 했었다. 그러나 갈 수 없었다. … 그는 진실로 이 새로운 아테네를 사랑하게 되었다.”(112). 출라키스는 치노 린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불행한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 땅을 사랑했기에 여기에 남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저자는 그를 칠레노로 품어주고 싶었으며, 칠레노가 되기를 선택한 그를 의리 있는 사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2) 술집에서 환영받는 자 vs. 환영받지 못한 자

바보스럽고 남성적이지 못한 치노 린에 대한 묘사는 그가 흠모하는 프레시아와의 대화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외모 면에서, 그가 단골로 드나드는 수정궁(El Palacio de Cristal)에 가기에 앞서 그는 프레시아를 포함한 못 여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항상 목욕재개를 하고 모닝코트를 걸친 후, 머릿기름을 검정색 머리카락에 단정하게 바르고 외출을 한다. 자신을 가꾸는 데 들이는 노력에 대한 묘사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 허영심 많은 여성을 연상시킨다.

치노 린은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지만, 수정궁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가 짝사랑하는 프레시아를 찾고, 그녀에게 청혼을 여러 번 한다. 제28장, “창녀들의 코러스”에서 치노 린의 애처로운 구애와 실연과정이 묘사된다.

옥고 평점심을 상실한다. 치노 린이 결혼하자고 매달리자 그녀는 급기야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더러운 치노’와 ‘얼간이’라고 부르며 모욕한다. 이 장면은 사뭇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인물이 남성인물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것도 이 책에서는 이례적이다. 『빛은...』에서 다른 남성이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은 여럿 등장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으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성인 중국인 남성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으로, 훈육을 당해야만 하는 유아적 존재(infantalized being)로 전락한다.

치노는 이 광경을 목격한 식당의 구경꾼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자신이 단골로 다니는 술집에서 대우를 잘 받기는커녕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치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스만은 치노의 퇴장을 다 시금 중국인의 정형화된 소극적 발걸음, “짧은 보폭”으로 묘사한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이는 중국여성들의 전족풍습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구스만은 이를 남성인 치노 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엘 그리에고가 술집을 갈 때에는 치노 린과 판이한 대우를 받는다. 항상 환영을 받는 출라키스는 예르바 루이사(Yerba Luisa)라는 술집에서 누군가가 건네준 바이얼린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술집여자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본다. 급기야 엘 그리에고는 선율을 키다가 울컥하여 눈물을 내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술집의 모든 손님과 종업원들이 감동하여 “티 없는 침묵과 경이로움으로 그를 둘러쌌다.”(120). 그 선율은,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노래였던 것이다.¹⁰⁾ 이윽고 술집종업원인 멜라니아가 춤을 추자고 청하고, 거기에 테레사도 합류한다. 엘 그리에고는 여자 둘에 둘러쌓여 춤을 추게 된다. 엘 그리에고는 눈물을 흘려도 남성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성적이라고, 더 인간적이라고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 엘 그리에고의 눈물은 그가 나약하거나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상징이 아니다. 또

10) 출라키스에 할애된 장 제목, “요람의 노래” 역시 이 에피소드에서 나온 것이다.

일상대화에서 위와 같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치노 린을 우습게 보이게 하지만, 프레시아와의 대화에서는 구애를 하고 있기에 더욱 애처롭다.

“¡Flesita, no me dejes!” – exclamó el Chino Lin

“¡De velas quielo casalme contigo! ... ¡Mi casa, mi almacén, Flesita linda, tolo tuyo!...”¹²⁾(248)

위의 대화에서 린은 ‘todo(모든 것)’을 ‘tolo’로 잘못 말하고 있다. 이키케에서 수십 년 살았고 자신의 가게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현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부족한 남자(infeliz)’¹³⁾로 설정되고 있다. 치노 린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설정이다. 그런 치노 린을 프레시아가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빛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어디에선가로부터’ 흘러들어온 사람들이다. 칠레의 남쪽에서 국내이주를 한 안드라데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엘 그리에고 처럼 그리스에서, 엘 노루에고처럼 노르웨이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치노 린이나 엘 그리에고와 엘 노루에고는 모두 젊은 시절에 이키케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유독 치노 린만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엘 그리에고와 노루에고는 모두 현지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한다.

이 언어적 차이 때문에 소설에서 치노 린이 등장할 때마다 그와 다른 인물들간의 지위와 위상이 다르게 각인된다. 치노 린은 발화를 할 때마다 모자라는 인물로 전락한다. 구스만의 다른 소설에서 모든 인물들이 동등하고 대등한 것으로 묘사되고, 저자는 특별한 인물에 도덕성이나 그 외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빛은...』에서 중국인 출신의 치노 린과 다른 이민자들간의 차

12) “나를 떠나지마, 프레시타!” 치노 린이 소리쳤다.

“정말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내 집, 내 가게, 사랑스러운 프레시타, 모두 다 네 거야!”

13) 프레시아는 치노 린의 구애를 뿌리칠 때 “더러운 치노! 꺼져, 이 찌질아!(Chino sucio! ... ¡Sale, infeliz!”하고 소리쳤다(250).

소개하고 있다(227). 이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으나, 그녀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응적인 성격, 순진함과 순수함, 나약함에 대한 서술로 보여진다. 클레멘티나는 결혼을 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칭할 때 ‘치니타’를 시종일관 사용한 것은 저자가 그녀를 유아화시키는 장치로 보여진다. 그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에우도시오와 관련해서 ‘그의 치니타(su chinita)’로 표기하고 있는데, 에우도시오는 아직 청년이어서 분명히 실제로는 클레멘티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자는 그녀를 더 유아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독자가 클레멘티나를 처음 만나는 것은 초석광산 상점(pulpería) 직원인 에우도시오의 눈을 통해서이다. 젊은 청년 에우도시오는 출라키스의 손녀딸, 비르히냐를 연모하고 있으나 그녀에게 고백은 못 하고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상점에 물건을 대러는 에르난 윈(Hernán Win)이 그의 젊은 아내 클레멘티나와 찾아온다. 에우도시오는 클레멘티나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을 느낀다. 에우도시오가 그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는 중국인들을 정형화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녀는 선한 동양인 특유의 근엄함과 차분함을 가진 남편과 같이 가게에 들어왔다. 남편은 가게를 신중하게 둘러보며, 엄격한 눈빛으로, 짙막한 걸음(a cortos pasitos)으로 들어왔다.(227)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와 백색도자기 같은 피부색에, 몸에 들러붙는 긴 검정색 옷을 입었지만 그 형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짧고 빠른 발걸음(de andar breve y rápido)에서 에우도시오는 그녀가 달콤한 작은 생쥐 같다고 생각했다.(228)

저자는 윈 부부의 등장에서 그들의 “짧은 걸음”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 그 걸음은 그냥 ‘짧은 것’이 아니라(corto pasos), ‘짙막한 걸음’(cortos pasitos)이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뒤에 또다시 언급된다(de andar breve y rápido). 이러한 ‘짧은 걸음걸이’는 위에서도 논의했듯이 치노 린의 발걸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이는 중국여인들의 전족풍습을 넘지시 시사하는 듯한데, 그것을 중국인 남성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인 남성을 여성화 시

“Si es necesalio quedalse, yo me quedalé”, decía el oriental.

“Clementina volverá al puelto a atendel negocio.”¹⁴⁾(229)

이처럼 치노 린을 비롯한 중국출신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r’ 발음을 하지 못한다. 중국인들은 칠레북부에 이주를 와서 장사는 할 줄 알아도 언어를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재현된다.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영동화될 수 없는 이방인임이 강조된다. 그런 중국인의 혀 짧은 대화를 서술적으로 매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과 다른 등장인물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들을 이 땅에 어울리지는 않는,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재현시키고 있다.

2) 정복자 칠레노의 남성성 vs. 치노의 부실함

위의 인용문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에우도시오의 클레멘티나에 대한 욕망은 대단히 강한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 구스만은 ‘탐험가, 정복자로서의 본능’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레멘티나는 정복자(conquistador)를 기다리는 ‘이국적인 섬’으로 비유된다. 구스만은 탐험과 정복을 남자의 본능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런 정복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정복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클레멘티나 우잇은 마치 환상적인 섬과도 같았다. 에우도시오는 이 섬의 밀림, 나무들의 수액, 이곳에 숨겨진 보물 등이 섬의 가장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모두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다.(229)

그는 사리분별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생각, 그의 뱃속, 그의 살 속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숨 쉬는 욕구는, 중국여인의 형상으로 나타난 저 신비하고 이국적인 섬의 발견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를 품어서 그녀의 밀림, 그녀의 수액, 그녀가 가진 보물들의 아름답고도 진한 맛을 보고 말아야 하는 것이었다.(230)

14) “내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한다면 남겠습니다.” 동양인이 말했다. “클레멘티나는 향구로 돌아가서 가게를 돌보게 하지요.”

“에르난 윈은 그저 만지기만 한다고. 뽀뽀만 하고 더듬기만 해! 그래서 네가 좋은 거야, 아이, 멋진 에우도시오!” (232)

“아이, 에우도시오! 에르난 윈은 더듬기만 해. 치니타는 너만을 사랑해!”¹⁵⁾
(232)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정사장면에서 클레멘티나는 그녀를 점점 거칠게 다루는 에우도시오를 독려하는데, ‘만지기만 하는’ 치노 윈은 그녀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해줘, 그게 좋아, 에우도시오!”(233)

에우도시오와 치노 윈의 성적기량을 직접 비교하고 이 경쟁의 승자로 에우도시오를 지목하는 클레멘티나를 통해 치노 윈은 성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한다. 클레멘티나의 치노 윈에 대한 욕구불만은 에우도시오의 성적기량으로 해소가 되면서 두 남자의 남성성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클레멘티나를 만족시킨 에우도시오는 이 과정을 통해 그 남성성이 확인되고, 이로써 정복자로서 정당하게 서게 된다.

에우도시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복자가 된다. 먼저, 그는 신체적으로 가냘프고 작은 중국인 여성을 사로잡고 정복한다. 두 번째로 그가 굴복시켜 정복한 것은 이방인인 치노 윈이다. 에우도시오가 클레멘티나를 성적으로 정복하면서 칠레노가 치노보다 사실상 우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치노 윈은 패자이자 열등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젊은 칠레노 에우도시오는 명민하고, 매력적이고, 강인하며, 성적기량이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치노 윈보다 뛰어난 존재이다.

엘 치노 린과 클레멘티나는 모두 정형화된 중국인 캐리커처로 시각화되어서 제시되고, 현지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재현하

15) 이 말을 할 때에도 역시 클레멘티나는 다른 중국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r’ 발음을 구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외침들은 더 애처롭게 느껴진다: “Hernán Win no hacel má que caliño. ¡Besal, besal, y tocal no má! ¡Por esto quelelte a ti! ¡Ay, Eudocio lindo! ... ¡Chinita quelel a ti, no má!”(232).

를 부인하고자 하는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구스만도 한 때 존재했던 중국인에 대한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그 당시 중국인 이민과 그들의 유산을 칠레의 일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에, 소설에서 유럽출신의 이민자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엘 그리에고와 엘 노루에고는 중국인 여성을 정복한 젊은 칠레노와 같이 진취적이고 남성적이었다. 특히 엘 그리에고는 이중국적자로 이곳에 남아있고 자 하는 강한 열망의 소지자로 그려냄으로써 유럽이민자들이 더 ‘칠레인답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엘 그리에고와 엘 노루에고 모두 이 곳에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여 칠레 국민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구스만도 이민자를 보는 데 있어서 칠레노로서 ‘더 바람직한’ 종족과 ‘덜 바람직한’ 종족을 구분한 것이다.

『빛은...』 구스만이 소망했던 것과 달리 칠레 북부지방에 대한 명작이 되지 못하였다. 책이 당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작 『피와 희망』만 못하다는 의견들이었다. 『빛은...』 1963년에 개정판이 나오기는 했으나, 판매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민속학자 리카르도 라참(Ricardo Latcham)에 의하면, 『빛은...』의 이야기 구조는 복잡했으며, 문체는 지나치게 서정적이고, 성행위와 폭력적인 장면들의 선정성은 인물들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비평하였다(1964; Pearson 1977, 32에서 재인용). 비평가들은 구스만이 산티아고의 슬럼은 본인이 직접 자란 환경이어서 충실하게 묘사할 수 있었지만은, 북쪽에서는 그런 친밀성이 결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Pearson 1977, 32). 구스만 본인도 이 점을 인정했었다고 하는데, 38세대 동료 작가인 오메로 바스쿠니안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친구여, 팜파는 정말 어렵다네.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아. 정말이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네”라고 적어보냈다 한다(Bascuñan 1964, Pearson 1977, 33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것은 당시 국내외 비평가들은 중국인을 무시하는 인종주의적 어조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중국이주민은 비평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고, 주목을 받지도 못한 것

이다. 중국이주민은 보이지 않은 주체로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당시 중국이주민의 낮은 위상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구스만은 스스로를 민중작가로, 칠레의 프롤레타리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소설을 쓴 칠레의 민중작가이다. 『빛은...』 칠레 북부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되었으나,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북부의 다민족·다인종 사회의 통합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대신에 이를 인종적으로 구분하고 분절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칠레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중국인 이주민을 더 열등한 존재로 보았고, 중국인을 칠레노동자들과 똑같은 초석산업의 소산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쩌면 중국이주민은 칠레 프롤레타리아와의 관계에서, 초석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묻고, 그 범위에 누가, 어떻게, 왜 포함되는지, 그 경계는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도발적인 존재였을 수도 있다. 중국인의 존재는 칠레라는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공존할 수 있는지, 당시의 통념으로 칠레의 민중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서 구스만은 중국인을 바람직한 칠레노로 보지 않은 것이다.

20세기 초에 칠레가 서구로부터의 이민은 환영하고 중국인의 이민을 ‘황인종의 침략’으로 견제했던 행태는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적이며 고유의 역사적 과정을 부인하고 서구문명을 이상화하는 식민성의 반영이었다. 타라파카의 초기 중국인 쿨리들이 태평양 전쟁 때 칠레 편에서 싸운 역사를 감안하면 중국인을 칠레노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는 더욱 더 정당성을 잃는다(cf. Guerrero 1990, 671). 칠레의 소외된 자들을 품고자 했던 구스만도 인종주의가 깊이 배태된 식민성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식민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깊은 지류에 흐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중국인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역사에 주목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일 것이다.

참고문헌

- 조경진(2014), 『사막의 기적: 칠레북부 흥망성쇠의 문화와 지역개발신화』, 산지니.
- 카슬, 스티븐, 마크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일조각.
- Allende, Isabel(1982), *The House of the Spirits*, New York: Alfred A. Knopf.
- _____ (1998), *Daughter of Fortune*, New York: Harper Collins.
- Bascañan, Homero(1964), “Sueños, cenizas y recuerdos”, speech delivered at the Santiago Jewish Center.
- Chou, Diego Lin(2004), *Chile y China: Inmigración y relaciones bilaterales(1845-1970)*, Santiago: Instituto de historia, Centro de investigaciones Diego Barros Arana.
- Collier, Simon and William Sater(1996), *A History of Chile, 1808-1994*, Cambridge, New York and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nández Navas, Pamela(2015), “La otredad incivilizada en el mundo del salitre. El caso de indígenas bolivianos e inmigrantes asiáticos en Tarapacá, 1900-1910”, *Polis. Revista Latinoamericana*, Vol. 14, No. 42, pp. 79-96.
- Ferrero, Mario(1982), *Nicomedes Guzmán y la Generación del 38*, Santiago de Chile: Ediciones Mar Afuera.
- González Pizarro, José Antonio(2002), “Norte Grande, de Andrés Sabella. Las ideas pivotales de una obra epigonal en la literatura salitrera chilena”, *Revista Ciencias Sociales*, Vol. 12, pp. 55-66.
- Guerrero J., Bernardo(1990), *Del Chumbeque a la ZOFRI. ¿Los iquiqueños somos los mismos?*, Iquique: Ediciones El Jote Errante. (Kindle edition)
- Guzmán, Nicomedes(1952)[1957], *La sangre y la esperanza*, Santiago: Editorial Nascimento.
- _____ (1951)[1963], *La luz viene del mar*, Santiago: Editorial Cultura.
- Hu-Dehart(2005), “On Coolies and Shopkeepers. The Chinese as Huagong (Laborers) and Huashang(Merchants) in Latin America/Carribbean”, Wannu W. Anderson and Robert G. Lee(eds.), *Displacements and Diasporas. Asians in the Americas*, Rutgers: Rutgers Univ. Press.
- Latcham, Ricardo(1964), “El escritor en su universo”, *Cultura*, vol. 96, pp.

24-28.

Pearson, Lon(1976), *Nicomedes Guzmán. Proletarian Author in Chile's Literary Generation of 1938*, Colombia: Univ. of Missouri Press.

Sabella, Andrés(1959), *Norte Grande. Novela del Salitre*, Santiago: Editorial Orbe.

Said, Edward(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Teitelboim, Volodia(1952), *Hijo del Salitre*, Santiago: Ediciones LOM.

조 경 진

고려사이버대학교
azinku@cu.ac.kr

논문투고일: 2019년 07월 17일

심사완료일: 2019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08월 29일

‘El chino’ and ‘La chinita’ – Stereotypical and discriminatory representations of Chinese migrants in Nicomedes Guzmán’s *La luz viene del mar*

Kyungjin Cho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Cho, Kyungjin(2019), “‘El chino’ and ‘La chinita’ – Stereotypical and discriminatory representations of Chinese migrants in Nicomedes Guzmán’s *La luz viene del mar*”,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2), 45-79.

078
079

Abstract This study questions the place of early Chinese immigrants in the Chilean national imagi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ir depiction and representation in Nicomedes Guzmán’s novel *La luz viene del mar*(1951). Guzmán is one of Chile’s ‘Generation of ‘38’, a venerable group of writers who came from humble backgrounds to write, extol and support the working class and the burgeoning Communist movement. In this novel, Guzmán essentializes Chinese migrants in the north of Chile by emphasizing and exaggerating exotic physical and temperamental traits. He also juxtaposes Chinese migrants with those from Western countries, to highlight differences in strength, character, courage, desirability and sexual prowess. The Chinese come out as a far more inferior and less desirable citizens for Chile. The story ends with the death and deportation of the two Chinese characters, with no offsprings left in Chile, effectively effacing their being from Chilean territory, and thus denying their continued presence in the land. Through this analysis, I argue that Guzmán may have been a writer sympathetic to the proletariat cause and equality, but that he was not able to overcome Eurocentric notions o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nd racism.

Key words Chinese migrants, Chile, racism, Nicomedes Guzmán, *La luz viene del mar*